

‘폭염 엑소더스’...한밤 도심공원 인파 몰려

광주·전남 전역 폭염특보...열대야에 밤잠 설친 시민 북적 온열환자 속출·전력사용량 최고 속 이열치열 국토 순례도

“덥다. 더워. 장마가 그림네요.”

25일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숨막히는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는 연일 올 최고기온이 경신되면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광주지역에는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나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광주 도심 공원 곳곳은 돛자리를 펴고 담소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전남 전역 폭염특보...전력사용량 최고치=25일 광주·전남 전역에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화순·나주·순천·광양·보성·구례·곡성 등 전남 7개 시·군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또 목포·여수·해남 등 전남 1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

효됐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구례·곡성(34.7도), 나주(34.6도), 순천(34.1도), 광양(33.7도) 등 전남 13개 시·군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또 전남 밤(24일 오후 6시~25일 오전 9시) 광양(26.6도)·광주(26도)·목포(25.9도)·여수(25.9)·순천(25.6도)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열대야와 함께 전력사용량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광주·전남의 전력사용량이 513만kW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최고치

를 경신했다. 25일 오후 3시께에는 506만 kW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전력사용량 최고치는 520만kW(2015년 8월7일)였다.

◇“더울 때는 공원만한 곳이 없죠”=송범석(33·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최근 밤마다 아내와 양산동호수공원을 찾고 있다. 아파트에서 냉방기기를 켜는 것보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무더운 여름 광주 도심 공원 곳곳이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연인 단위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젊은층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서구 온천호수공원으로, 밤마다 돛자리를 펴고 친구·연인과 함께 치킨에 맥주를 먹는 ‘치맥’을 즐기는 이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구 풍암호수공원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려고 나온 시민들이 대부분으로, 밤 11시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광산구 쌍암공원, 일곡 근린

공원, 광주천변, 전남대 운동장 등도 무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인다.

◇‘이열치열’ 국토 순례에 나선 청년들=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다리, 자전거로 국토 순례에 나선 청년들이 있다. 전국 청소년 350여명은 2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출발, 임진각까지 499km를 자전거로 달리는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나선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순례에 나선 이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안산에 들러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지역 청소년들과 거리 문화제도 열 예정이다.

‘세월호 대학생 도보 순례단’ 130여명도 폭염 속에도 세월호를 향해 힘찬 걸음을 옮기고 있다. 4·16 대학생연대 소속 학생과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3일 세월호가 인양되면 거취 될 목포 신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진도 팽목항까지 3박4일간의 도보순례 일정을 시작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센인 국가 소송’ 9월 23일 선고

단종·낙태 수술 139명 손배소

한센인들에 대한 단종(斷種)·낙태 수술에 대한 법정 다툼은 오는 9월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5일 한센인 139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오는 9월 23일을 판결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관련 사건도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정리한 서면으로 기록을 점검하겠다”며 양측에 다음달 16일까지 최종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했다며 지난 201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

라는 5건의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수술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항소·상고를 이어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소송 5건 중 1건의 항소심을 맡아 사법 사상 처음으로 고층 소속도 현지에서 특별재판을 열었다. 그런 만큼 서울고법에 계류된 나머지 한센인 소송 3건도 이번 민사30부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판권이 나온다. 이날 마지막 재판에서 한센인 측은 “국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수술을 해 놓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처럼 국가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방산업 노조 “발암물질 우려 과장”...조업 정상화 희망

1급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논란을 빚은 세방산업 노동조합은 25일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며 조업 정상화를 희망했다.

박거영 세방산업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회사의 일일인 근로자로서 광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만 “근로자들이 1군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식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만일 회사의 작업환경이 근로자 건강과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개선과 조업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TCE는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배터리 격리판을 생산하는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세방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 금속 가공 등 산업에서 사용 중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1급 발암물질인 것은 분명하지만 술, 소금에 절인 생선, 자외선, 담배연기, 자동차 매연 등 100여종 이상의 것 중 하나”라며 “생소해서 더 위험한 물질로 인식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평균 근속연수 18년인 근로자들도 해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았지만 TCE로 인한 직업병 징병자는 없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자택 신축 특혜 의혹’ 보성군수·도의회의장 등 검찰 수사

군수 자택 신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보성군수와 전남 도의회 의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신축 부지를 할당해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를 불구속 기소로결정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를 할당해 판 인명규 전남도의회 의장과 건축비용을 낮게 산정한 업자 박모(63)씨, 지역 정당인, 공무원 등 9명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송치됐다.

이 군수는 임 의장 등으로부터 지난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 소재 시가 4800만원인 토지를 2000만원에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보성군 벌교읍에 1031㎡ 부지에 15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3억4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주택 신축공사비용을 2억2000만원만 지불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의장 측은 토지 구매 당시와 같은 가격으로 땅을 판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방선거 직후 토지 매매가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뇌물로 판단했다.

/김형호기자 khh@

폐지더미 뒤져 현금 2000만원 찾아준 경찰

고흥서 돈넣은 고추박스 버려...타격대까지 동원 수색

현금 2000만원을 넣어둔 고추박스를 쓰레기와 함께 버린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분실 15시간 만에 돈을 되찾았다.

25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0시께 전모씨가 현금 2000만원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해왔다. 전씨는 5만원권 400장을 고추박스에 넣어둔 사실을 깜박 잊고 집 청소를 하면서 돈이 든 박스를 다른 쓰레기와 묶어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쓰레기장을 뒤져 전씨가 돈 박스와 함께 버렸던 다른 쓰레기를 발견했다. 하지만 돈이 든 박스를 찾아내지 못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다른 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만 없어진 점을 파악한 경찰은 폐지 수집상이 박스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나하나 모두 확인해 전날인 23일 오후 아파트 쓰레기장을 방문해 폐지를 수거한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폐지 수거차량이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돈 박스를 수거했고 이를 폐기물 처리장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즉시 타격대까지 동원해 폐기물 처리장에 출동한 경찰은 2시에 달하는 폐지 더미를 뒤져 25일 오후 1시께 돈이 든 박스를 찾아 전씨에게 전달했다.

/고흥=주작기자 gju@



손씻기 이렇게 25일 광주 북구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손씻기 체험교육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보건소 직원들로부터 손씻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신병원 50대 여성환자 삼푸 마시고 숨져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50대 여성 환자가 병실에서 삼푸를 마시고 다음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병원 응급실로 삼푸를 마시고 이상 증세를 보이던 A(여·55)씨가 실려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서구 쌍촌동의 H정신병원 병실에서 삼푸 300㎖(가량)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H정신병원 측은 4인실에 입원 중이던 A씨가 삼푸를 마시는 모습을 CCTV로 목격 한 뒤 상태를 지켜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고 복통을 호소하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삼푸 자체가 독극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환자 상태를 예의 주시하다가 6시간이 흐른 뒤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찰받게 한 것이다. 병원 측은 환자 A씨가 마신 삼푸가 상당량 소변과 대변으로 빠져나와 위세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날이 밝으면 병원을 찾으라는 당부와 함께 새벽 4시30분께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그러나 4시간이 흐른 24일 오전 8시30분께 집에서 숨을 거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만평 ★ LG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역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평택 신장동 (개발토지)
초역세권 송탄역 5분 (송북시장) /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경기도 화성 A.P.T 분양전환

화순 시청 2분 !! 초 역세권 시청역 여의도까지 30분! 남양뉴타운 개발도시

① 매가 2억 3천 ② 대출 2억 ③ 임대 보 3천 / 월 70만

실 투자 1천만 (천만원에 집한채 마련) (1억에 10채)

지역 → 경기도, 서울권, 순천 전남권

오피스텔 및 사무실 임대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 45평
▶ 최고급 인테리어 (약 6평 저층 필립방 1개)
(시설비 약 4천만) (사무실 2개)
▶ 천변로 전망 최고 !! 주차 완비
(사무실 최적함)

★ 매가 1억4천만 ★

평택 고덕신도시 토지 (소액 투자)

① 평택시 고덕면 방촌리 (고덕 교차로 7분) /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전남,순천) 20평형 A.P.T 분양

▶ 시세 → 1억 5백만 ▶ 매가 → 9천만 (웅8천만)

▶ 실투자 1천만

<p>사무지구 수원오피스텔 매매 (롯데마트 앞, 상나이트 옆)</p> <p>▶ 6층 - 23평 ▶ 투룸 형, 코너자리, 리모델링완비, 풀옵션</p> <p>보 500만, 월 45만 ▶ 매가 8천 500만</p>	<p>서구 쌍촌동 고급형 원룸 매매 (운천저수지 3분, 운천역 3분)</p> <p>▶ 2층 - 10평 ▶ 리모델링완비, 풀옵션</p> <p>보 200만, 월 30만 ▶ 매가 4천만</p>
--	--

062-382-5500 010-6834-4800

010-6670-9800

010-7384-7800